

‘브라부스’ 효성 손잡고 한국 진출

(세계 최고 성능 튜닝카)

벤츠 기반의 컴플리트카 국내 판매

아승, 서울 효성타워에 전시장 오픈

국내에서도 벤츠를 기반으로 최고의 성능을 갖추도록 제작된 ‘브라부스(BRABUS)’의 컴플리트카를 정식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아승오토모티브그룹(대표 차지원·이하 아승)은 지난 24일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35 효성타워에 브라부스 컴플리트카 전시장을 재오픈하고 공식 판매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브라부스 컴플리트카는 메르세데스-벤츠 차량을 기반으로 고객들의 요구에 따라 최대 900마력 수준의 강력한 퍼포먼스와 호화로운 인테리어를 튜닝하는 초고성능 슈퍼 럭셔리카다.

기존 튜닝카가 차량의 일부분을 고친 수준이라면 컴플리트카는 기존 차의 골격만 갖고 나머지 부분을 완전히 새롭게 만든 새로운 개념의 차라는 게 차지원 대표의 설명이다. 단순한 튜닝을 넘어 새로운 브

랜드 수준의 특성을 지닌 차로 재탄생한 제품이라는 것이다.

아승은 이날 우리나라에 공식 출시된 컴플리트카 ‘S63 760’과 ‘G63 AMG 850’을 선보였다. 이름에 붙은 숫자는 개조된 이후의 출력을 뜻한다. S63 기반의 컴플리트카 ‘760’은 760마력의 슈퍼카로 변모해 소비자가 3억 4000만원이다. 2억 4000만원짜리 G63 AMG는 브라부스의 컴플리트카로 변신해 850마력 4억 8000만원짜리 차로 재탄생했다.

브라부스는 독일정부의 제품인증테스트(TUV)를 통과한 부품만을 사용해 제품 설계에서부터 조립까지 주문 고객 단 1명만을 위한 차를 만들어낸다. 벤츠 전용 바디킷과 단조 휠, 가변배기시스템, 플러그인 인플레이 방식의 파워킷, 엔진 개조 튜닝과 특수 제작된 서스펜션 등의 튜닝 제품을 차량에 적용, 럭셔리와 파워풀이 조합

된 세계 최고의 차량을 만들고 있다.

이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세단 부문의 기네스 기록을 갱신해왔다. 1996년 벤츠 E클래스에 장착된 브라부스 V12 7.3 S 엔진은 574마력 78.7도크로 최고속도는 330km를 기록하고, 현재 판매되고 있는 브라부스 900 로켓 엔진은 900마력 153도크 최고속도 370km로 현존하는 가장 빠른 세단으로 기록돼 있다. 액셀을 밟으면 귀청이 울릴 정도의 호랑이 소리가 들러 엔진에 호랑이를 넣었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다. 최고급 가죽을 사용한 인테리어 튜닝도 제공한다. 고객의 요구에 따라 최고급 가죽 및 알칸타라 등의 고가 소재의 사용과 함께 첨단 멀티미디어 시스템을 적용해 럭셔리 감성을 부여한다.

한국 고객들은 국내 시장에서도 브라부스 본사 정책에 따른 3년 10만 km의 품질 보증과 함께 애프터서비스를 동일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

차 대표는 “세계 최고의 고성능 세단과 SUV를 자랑하는 브라부스 컴플리트카 국내 출시는 한국 튜닝 문화의 터닝포인트

가 될 것”이라며, “리뉴얼 오픈한 아승 서초 지점은 튜닝 파츠 장착은 물론 컴플리트카까지 튜닝과 관련한 모든 고객들의 요구사항을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 가능한 통합 센터”라고 말했다.

아승의 컴플리트카 출시를 축하하기 위해 처음으로 한국에 온 콘스탄틴 부시맨 브라부스 영업담당 임원은 “브라부스는 연간 7500대 규모의 컴플리트카를 전 세계 시장에 판매하고 있는 40년의 역사를 지닌 세계 최대 규모의 튜닝 회사”라며, “브라부스의 일원이자 뛰어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아승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한국 소비자를 만날 수 있게 돼 영광”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승은 지난해 효성그룹으로의 합병을 통해 효성이 보유한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의 영업력과 자금력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향후 아승은 압트(ABT), 테크아트(Techart)사의 컴플리트카도 연이어 도입할 계획이며, 향후 클래식카 사업에도 진출할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80.63 (-11.87) ↑ 금리 (국고채 3년) 2.18% (+0.09)

↓ 코스닥 680.61 (-8.53) ↓ 환율 (USD) 1124.60원 (-3.30)



‘힐스테이트 연제’ 1196가구 분양

오늘 견본주택 개관

현대엔지니어링은 27일 광주시 북구 연제동 226번지 일원에 있는 ‘힐스테이트 연제’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힐스테이트 연제는 지하 1층~최고 지상 25층 17개동으로 총 1196가구 규모다. <투시도>

공급되는 타입은 전용면적 기준 ▲82㎡ 214세대 ▲84㎡ A 893세대 ▲84㎡ B 89세대다.

단지가 들어서는 북구는 광주 내에서 신 흥 주거지역으로 떠오르는 곳이다. 북구 첨단2지구는 첨단2산업단지의 배후 주거지로 개발됐으며 현재 7700가구 이상이 입주를 마쳐 생활인프라도 갖춰져 있다. 힐스테이트 연제는 판상형 4베어로

설계됐다. 84A·B 타입은 주방을 선택할 수 있으며 82B의 경우 안방 드레스룸을 대형으로 특화시켰다. 전 가구의 70% 이상을 정남향으로 배치했다.

단지에서 호남고속도로 동림IC와 빛고을대교가 가까운 차량으로 이용해 광주시 내외곽으로 이동이 편리하며 광주 도시철도 2호선(2025년 개통) 본촌역이 들어서 향후 대중교통 여건은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연제초등학교와 양산중학교가 있으며 도로로 통학이 가능하다. 11월1일 특별공급 청약의 시작으로 1순위 2일, 2순위 3일 청약접수를 진행한다. 당첨자는 11월9일 발표될 예정이다. 견본주택은 광주도시철도 1호선 농성역 인근(광주시 서구 화정동 179-1)에 위치해 있다. 분양문의 1577-1488.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동부대우전자 인수전 대우위니아 등 4파전 압축

동부대우전자 인수전이 4파전으로 압축됐다.

26일 금융시장 등에 따르면 동부대우전자 인수를 비공식적으로 추진했을 만큼 관심이 많다. 이번이 사실상 두 번째 인수 시도다.

매각 주관사인 NH투자증권은 다음 달 셋째주 정도에 인수 후보를 상대로 본업찰을 진행할 계획이다. 인수 후보로 예상됐던 스웨덴 일렉트로룩스는 지난달 29일 예비입찰에도 잠

여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대우그룹은 지난해 동부대우전자 인수를 비공식적으로 추진했을 만큼 관심이 많다. 이번이 사실상 두 번째 인수 시도다.

매각 주관사인 NH투자증권은 다음 달 셋째주 정도에 인수 후보를 상대로 본업찰을 진행할 계획이다. 인수 후보로 예상됐던 스웨덴 일렉트로룩스는 지난달 29일 예비입찰에도 잠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하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사업 11월 10일까지 접수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지방청(청장 김진형)은 지역 우수중소기업을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2017년 하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사업을 다음달 10일까지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전년도 수출실적 미화 500만달러 미만인 중소기업이며,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접수 후 현장평가와 평가결과에 대한 최종심의를 거쳐 하반기 수출유망

중소기업으로 지정(유효기간 2년)된다.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되면 중소기업진흥공단, KOTRA 등 20개 수출지원 유관기관을 통해 각종 우대지원 받을 수 있다.

한편 10월 현재 광주·전남지역에서는 92개사(광주 47개, 전남 45개)가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돼 수출지원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다. 문의 062-360-9193.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광주본부세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2곳 AEO 공인증서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양승권·사진 가운데)은 지난 25일 광주본부세관 10층 상황실에서 ‘2017년 제3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를 거쳐 신규공인된 관내 2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이하 AEO)에게 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이번에 신규로 공인된 업체는 (유)삼각에프엠씨와 한국알프스물류 주식회사다. ‘2016 무역의날 천만불 수출탑’을 수상했으며, 관세청이 AEO 공인확대를 위해 컨설팅 비용 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AEO 공인확대 지원사업’을 통해 선정됐다.

한국알프스물류 주식회사는 중국, 아세안, 북미, 유럽 등 전자부품 물류취급에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한 업체로, 광주본부세관 관할지역 최초로 화물운송수선업 부문 AEO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AEO로 공인받은 업체에게는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상 다양한 편의가 제공되며, 관세청이 주요 교역국과 체결한 AEO 상호인정협정을 통해 외국에서도 통관절차상 동등한 혜택을 받아 물류비용 절감 등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또 세관은 전문지식·실무경험 등이 풍부한 직원을 기업상담전문관·(AM)으로 지정해 AEO 공인업체의 협력파트너로서 수출입통관 관련 컨설팅과 각종 관세행정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광주본부세관 관계자는 “광주세관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내기업의 공인확대를 지원하겠다”며 “기존 AEO 업체에 대한 공인유지 및 활용 컨설팅을 통해 업체의 수출경쟁력 향상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광주디자인센터, 홍콩 메가쇼서 96억 수출계약

광주디자인센터(원장 박유복)는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2017 홍콩 메가쇼 Part 1’에 지역 10개 디자인기업이 참가해 250건 수출 상담, 860만 달러(96억 원) 상당의 수출계약 성과를 거뒀다고 26일 밝혔다. 디자인센터는 이번 박람회에서 참가 기업의 해외바이어 비즈니스 상담과 제품 홍보를 지원하기 위해 우수상품 공동 홍보관을 운영해 각국의 바이어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지역주력 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의 하나로 진행된 이번 해외 박람회 참가지원은 지역 디자인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번 박람회에는 도요요(대표 정영민)의 정사각형 트라구조를 이용한 벽면 거치용 소품 수납 상자를 비롯해 DNA 디자인(대표 안지은)의 폴리곤아트 컨셉으로 제작된 장식랙, 엘피스튜디오(대표 정원영)

의 착시 효과가 일어나는 벽걸이 후크, 팜돌(대표 임술)의 건전지 보관 및 방전방지 기능을 겸한 인테리어 소품, 바비사인(대표 김진아·김효미) 사무터 브랜드 역사사소의 대한민국의 다양한 사투리를 이용한 캘린더, 줘디자인 스튜디오(대표 이슬기)의 십자수 스티치를 모티브로 한 마그넷 홀더 등 10개 기업에서 30여종의 디자인 상품을 선보였다.

박람회 현장에서는 수출상담도 이뤄졌는데 엘씨씨(대표 이강현)는 자체 개발한 맥북 하단의 고무발 보호를 위한 스티커를 대만 문구 전문유통회사에 500개 수출하

기로 계약했다. 그루아이(대표 정영혜)는 일본 유아용품 유통 전문기업 바이어와 18만 달러(2억원) 상당의 감성적 디자인의 꽃화분 멀티 치발기(슈슈블름)를 수출하기로 했으며 듀리에(대표 강우광)는 일본 골프용품 전문 유통기업과 골프볼 주머니 ‘도치포치’를 연간 27만 달러(3억원) 규모로 수출하기로 상담을 벌였다.

박유복 광주디자인센터 원장은 “지역 디자인기업의 우수 상품들이 국내 판매는 물론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방치된 묘지 70%(추정)

우리 금수강산이 묘지장산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사람은 자연에서 태어나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본 자연장은 아름기도회에서 운영하는 화원들을 위한 종교시설입니다.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례문화입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례문화입니다.

아름수목장

자연장 · 수목장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46-8(2층)

☎ (062) 433-9191